



하느님의 유혹

하느님은 우리를 유혹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시지만, 특히 고난과 한계를 주심으로 우리를 유혹하신다. 그런 상황을 겪으며 인간이 '나실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그런 하느님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빠져리게 느끼면서 초월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

반대로, 똑같은 고난과 한계 상황에서 악마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힘 크기'를 추구한다.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고난을 이겨내고, 아니 고난을 겪지 않고 한계를 느끼지 않을 거라 여긴다. 다르게 말하면 현실에 대한 '회피'이다. 하느님 유혹에 빠진 이는 '방향'을 추구한다. 더 비워내고, 더 낮은 자리에서, 철저하게 '정신'을 영글어 낸다.

힘 크기, 곧 권력과 재물을 원하는 이들이 볼 때 방향을 추구하는 이는 바보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힘 크기에 머무는 이는 가진 게 아무리 커도 딱 그 크기만큼의 힘만을 가지지만, 방향을 추구하는 이는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 진짜 바보는 힘 크기에 집착하는 인간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바로 힘 크기와 방향의 싸움이다. 방향이 있다면, 제아무리 큰 덩치도 이겨낼 수 있다.

예레미야의 다섯 번에 걸친 고백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의 한계를 깊이 체험하는지를 보여준다. 고통이 커질수록, 한계를 크게 느낄수록, 예레미야는 방향적으로 더 강해진다.

로마서를 통해 바오로는, 힘 크기만 추구하는 현세에 동화되지 않고 정신을 새롭게, 곧 방향을 만들어야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하느님 뜻에 일치하는 방향을 추구하시지만, 베드로는 반박하며 악마 유혹의 길로 빠져든다. 예수님의 일은 하느님 뜻에 맞는 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지만, 베드로는 힘 크기의 관점에서만 보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 여긴다. 베드로의 모습이 대부분 우리 인간의 모습, 신앙인이라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이 우리를 유혹하신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예레 20,7-9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서	로마 12,1-2
복 음	마태 16,21-27

구한선 타대오의 발걸음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벼가 익어가는 함안 대산 들녘
햇빛이 고루 뿌려진다

청춘의 뜨거운 피는
이 빛의 뜨거움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 따라 떠나는 발걸음

탱자나무 가지 울타리 지나
허연 수염발의 갈대 뒤에
부끄럽지 않게 서서

바람을 맞고 있는 십자가를 본다

그분을 사랑한 죄, 곤장을 맞아야 하고
피 흘려야 했던 병인년의 신음소리

복음은 빛을 따라
들을 건너 산을 넘고
하늘까지 메아리치는구나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고
집에 계신 어머니 마음 헤아리며
기쁨으로 돌아오는 길

땀 흘리며 석양을 바라보는
이 들녘 어딘가
순교자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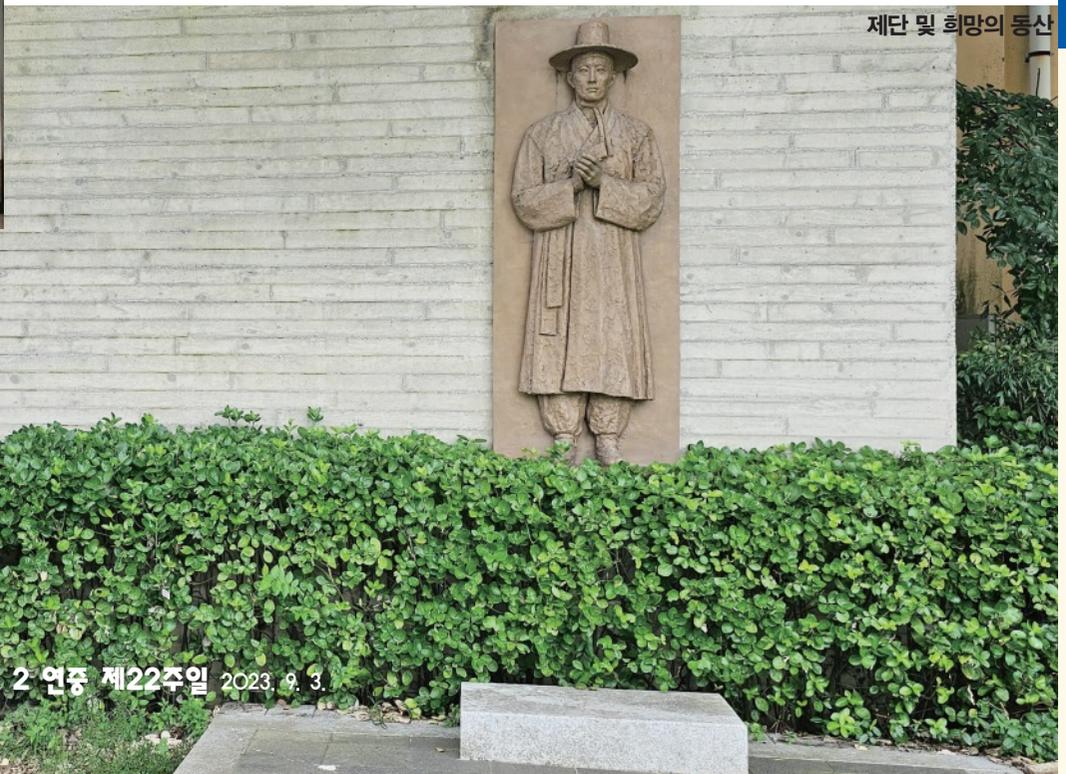


순교복자 구한선 타대오 초상화

구한선 타대오는 경상도 함안 미나리골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나 우연히 신자를 만나 입교하였고, 전교하러 다니다 병인박해 때 체포되어 문초를 당하고, 23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복자 품에 올랐다. 마산교구는 2016년 10월 20일 묘지 이장 작업을 진행해 구한선 복자의 유해를 대산성당 1층에 마련한 무덤 경당 제대에 모시고, 10월 29일 교구장 배기현 주교 집전으로 복자 구한선 타대오 순교성지 기념제단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특히 대산성지는 넓은 마당에 조성한 '희망의 동산'에 설치된 기념 제단이 있으며, 성지는 자매교구인 오스트리아 그라츠-셱카우 교구와의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지역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경당에 모셔진 묘소



제단 및 희망의 동산

칠성사(七聖事)와는 또 다른 성사를 아시나요?

‘구원의 보편 성사’ 교회

변종원 요셉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62년 로마에 많은 교부(敎父)들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열띤 토론과 논쟁 후,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해석을 토대로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인류의 빛, Lumen gentium)」 첫 항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一致)의 표징이며 도구이다.”(1항)

이 가르침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하느님이 결합하고,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그 일치를 이룩하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회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눈에 보이게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로써 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성사’(사목헌장, 45항)로 이해되어 집니다.

이점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곱 가지 성사(七聖事) 이외에 추가로 ‘교회라는 8번째 성사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성사(聖事, Sacramentum)’는 세상 구원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감각적,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룩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 성사의 은총으로 인간은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을 공경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단절, 분리, 그리고 세상에서 도피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표징이자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보이는 표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을 은총으로 받았기에, 이 성사적 표징은 신앙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회 안의 7성사가 주로 하느님의 은총과 관련한 것이라면, 교회는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도구라는 측면에서 구원의 보편적 성사라는 것입니다.

공의회는 교회가 무엇보다 신비이고,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 주는 일치(一致)의 표징이며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이기에, 이제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 구원의 성사 역할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즉, 각자가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사적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내 삶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의 표징이 되어,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삶, 겸손과 온유의 삶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선포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구원 사명’입니다.

바로 사도는 에페소 공동체에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에페 4,1-3)



교구 사제 인사발령 및 담당 사제 임명

▶ 교구 사제들의 인사를 8월 22일부로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부임일: 9월 1일(금)

사제명	임	면
양태현	생림선교본당 주임	생림선교본당 주임 겸 진례본당 주임
최재상	요양	합천본당 주임
이병우	합천본당 주임	공소사목 전담(배둔공소)
임성섭	진례본당 주임	청소년국 부국장
서시몬	청소년국 부국장	청소년국 차장

● 마산·창원 병원사목 담당 사제 임명

구분	사제명	임명일	비고
마산·창원 병원사목 담당	이영민 신부(삼위일체 수도회)	9월 1일	창원파티마병원 제외

● 연령연합회 담당 사제 임명

주관	단체명	임	면	임명일
사회복지국	연령연합회	최훈 신부	신명균 신부	9월 1일

● 가톨릭 문화원장 임명

구분	임	면	임명일
가톨릭 문화원장	박혁호 신부	김정우 신부	9월 15일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2

진주지역 교우촌 (4)

순교자 정찬문鄭燦文은 진주시 사봉寺奉에서 태어났다. 옛 지명은 상사면 중촌리中村里. 부인은 칠원 윤尹씨로 함안 대산代山 출신이며 피난 교우 따님이다. 부인 권면으로 정찬문은 입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씨 부인은 가등공소 회장을 지낸 윤성학尹聖學 바오로와 같은 문중이다. 윤 회장은 순교자 구 다두(타대오)의 무덤을 확인해 준 분이다.

정찬문은 아내가 교우인 줄 모르고 혼인했을까? 아닐 것이다. 추측건대 사봉지역에도 피난 교우들이 살았고 그들이 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소촌과 함안 교우들은 병인박해 이전부터 내왕하며 소식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사봉은 원래 함안군 상사면上寺面에 속한 지역이다. 1914년 일본의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인근 상봉면上奉面과 함께 진주군郡에 편입되었다. 상사와 상봉에서 한자씩 따와 사봉면이 되었다. 사봉은 1914년 이후 만들어진 지명이다. 사봉 교우촌은 훗날 굽실雲谷공소로 맥이 이어진다. 현재의 공소는 문산본당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정찬문 순교자 묘소 옆으로 새 성전을 지어 이전하였다.

천주교 회보(現 가톨릭신문) 13호에는 문산본당 탐방 기사가 실려 있다. 천주교 회보 13호는 일제강점기인 1928년 4월 1일 대구교구에서 발간한 것이다. 다음 구절은 내용의 일부를 간추린 것이다. ‘문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1863년이며 함안咸安에서 이주한 구 다두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구경수具敬守씨 부친이다.’

문산(소촌)에 처음 전교한 분을 구경수具敬守의 부친 구 다두라고 소개한다. 시기는 병인박해前 1863년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구정金九鼎 선생이 1967년 발간한 ‘천주교 경남 발전사에 의하면 구 다두의 실명實名을 구한선이라 적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구한선은 치명일기에 등장하는 구 다두와 같은 인물이다. 그는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리델(Ridel 이복명) 신부 복사服事로서 거제도를 방문했다. 당시 선교사의 복사가 되려면 신심 깊고 지리에 밝으며 신자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인물이어야 했다. 구 다두는 소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거제도 신자들은 그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병인박해 이전에는 거제도에도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 육지에서 들어간 피난 교우들이었고 섬 밖의 교우촌과 연결되어 있었다. 예컨대 윤봉문 순교자 부친은 노년을 함안의 논실과 가등공소에서 지내다 선종한다. 거제와 함안 교우촌이 연락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실제로 교우끼리 혼담을 위해서도 정보는 필요했을 것이다.

거제도 교우촌은 병인박해와 무진박해를 겪으면서 사라진다. 특히 무진박해는 도서지방과 해안지대를 철저히 뒤졌기에 대부분 거제도를 떠났다. 훗날 윤봉문 가족이 들어왔을 때 교우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무진박해로 유랑민이 된 피난 교우들은 서서히 고성과 함안 그리고 소촌지역 교우촌에 합류했을 것이다.

이 시기 소촌엔 교우촌이 둘 있었다. 두 지역에 교우들이 밀집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남산南山과 시정골屍葬谷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두 지역 교우들을 한 곳에 모아 판공을 치렀고 소촌공소로 보고했다. 이후 교우들이 늘어나자 두 지역을 따로 방문한다. 이렇게 해서 남산과 시정골공소가 새롭게 기록에 등장했다. 원당元堂공소는 문산을 삼곡리三谷里에 있었다. 이곳은 이곡면耳谷面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문산면이 된 지역이다. 줄리앙(Julien 권유량) 신부는 문산본당 초대 신부로 발령받자 원당공소가 있던 삼곡리에 초가집 세 채를 매입하여 임시 성당과 사제관으로 사용했다.

나의 단짝 꼬미

김말순 베아따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4년 전 딸아이가 갈색 푸들 강아지를 분양받아왔다. 두 달 겨우 넘긴 앓던 강아지 이름을 딸 아이는 ‘꼬미’라고 지었다. 딸아이는 바쁘다며 자연스럽게 강아지의 뒤치다꺼리를 내게 맡겼다.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은 대화가 별로 없었고 때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던 때였다. 꼬미가 오면서 그전엔 필요한 말만 하다가 대화가 많아졌다. 가족이 꼬미를 데리고 함께 산책을 하고, 꼬미의 보글보글 갈색 머리털을 마음껏 쓰다듬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청량제가 되었다. 때로는 말썽을 부려 때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순수함이 가득한 새끼만 눈의 꼬미가 재롱을 부리면 무장해제가 되어 가벼운 주의만 주고 말았다.

2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나에게 큰 병이 찾아왔다. 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겨운 일상을 지내야만 했다. 그때 하느님도 성모님도 내게 멀게만 느껴졌고 성당의 교우들과 지인들의 기도도 와닿지 않았다. 그렇게 의욕과 기력을 잃고 우울하게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을 때, 꼬미는 근심 걱정을 비워낸 해맑은 얼굴로 애정 가득히 나를 바라봐 주었다. 그러면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한 뼘씩 열리곤 했다. 내가 좌절과 공허함이 있었을 때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으로도 바꾸어 주었다. 꼬미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회복하려고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걷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체력이 허약해져 있다 보니 내가 걷다가 수시로 멈추면, 꼬미도 걸음을 같이 멈추면서 귀를 쫓긋이 세워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걷곤 해서, 일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 번에 쉬지 않고 한 시간 정도를 걸을 수 있다. 꼬미가 일상에서 제일 기특하고 대견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성모상 앞에 촛불을 켜면 어디선가 쪼르르 달려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 아니 내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한다.

한 송이 꽃은 남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꽃이기만 하면 된다. 명상가인 틱낫한이 지은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에 나오는 말이다. 꽃을 보며 평화와 치유의 힘을 느끼듯 나도 꼬미를 포근하게 안으면 온몸의 따스함이 느껴진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그 어떤 힘들 속에 놓여있더라도 불행하지 않다고 느낀다. 나의 단짝 꼬미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만물을 관장하시는 주님께서서는 비록 동물이지만 더불어 동반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해 주시는 것 같았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양〉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어린양이여, 하느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견진성사

일시: 9월 10일(주일)
 장소: 덕산동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 신부

교구/본당

교구 성경교육 양성 봉사자반 개강(6개반)

일시: 9월 4일(월)

제51차 청년성서 마르코 연수 2차

일시: 9월 8일(금)~10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제25기 아버지학교

일시: 9월 9일(토)~10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9월 10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하반기 교리교사 연수(1차)

일시: 9월 10일(주일) 09: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9월 봉사자 월례회

일시: 9월 4일(월) 14:00
 장소: 옥포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의: 담당자 010·5116·2288

창원이주민센터, 창원종합사회복지관, 창원경상대 학교병원과 함께하는 외국인 주민 무료 검진

일시: 9월 10일(주일) 08:30~17:00
 장소: 창원이주민센터
 대상: 의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
 예상인원: 150명
 진료과목: 치과, 산부인과, 순환기내과 등 8개 과목
 기본 검사(혈압, 혈당, 소변, 혈액검사)
 문의: 055·275·8203

기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 대학 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 지원 대학 선정
- 취업률 73.7% 충북권 1위
-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원서접수: 9월 11일(월)~15일(금)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과
 문의: 043·270·0100~0102

회복의 삶 1 “더 큰 선으로의 여정” (Zoom 강의)

일시: 9월 12일(화)~11월 28일(화) 매주 화-12주
 시간: 14:00, 22:00(자유롭게 참여)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회비: 7만 원(교재비 포함)
 접수 및 문의: 010·8911·5957(문자 접수)

청주교구 성령대회

일시: 9월 16일(토) 09:00~17:30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강사: 김웅렬 신부, 한연홍 신부, 오웅진 신부
 찬양: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제주 성이시들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들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9월 23일~25일/10월 1일~3일/10월 7일~9일/10월 12일~14일/
 10월 17일~19일/10월 20일~22일/10월 24일~26일/10월 29일~31일
 연말연시: 12월 30일~2024년 1월 2일(해남이, 해돋이, 눈꽃산행)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10월 2일~4일/10월 29일~31일/11월 16일~18일
 성지순례: 10월 7일~10일/10월 15일~18일/11월 4일~7일
 연말연시: 12월 29일~2024년 1월 1일(해남이, 해돋이, 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10월 21일(토)~22일(주일)
 11월 4일(토)~5일(주일)

3박 4일- 9월 21일(목)~24일(주일)
 10월 26일(목)~29일(주일)
 8박 9일- 10월 6일(금)~14일(토)
 11월 22일(수)~30일(목)
 40일- 10월 4일(수)~11월 12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웰다잉(Well dying) 신앙 특강

일시: 9월 12일(화) 10:00
 장소: 월남동성당 교육관
 대상: 누구든지 참석 가능
 강사: 최봉원 야고보 신부(성사전담, 前 교구 총대리)
 미사주례: 유영봉 야고보 문시놀(성사전담)
 주관: 교구 연령연합회(웰다잉교육부)
 문의: 010·4581·5420, 010·2836·3829

9월 순교자 성월 명례성지 일정 안내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명례성지에서 준비하는 행사에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순교자 성월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행 사	일 시	내 용
순교자 특강	9월 7일(목) 11:00~12:30	· 11:00 미사 (신석복 기념성당) ▶ 미사 중 특강 (강사: 김경희 수녀, 주제: 순교자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순교자의 밤 (음악회)	9월 15일(금) 19:00~21:00	· 19:00 야외 음악회 (트리오 '아미교', 하사, 품, 마산교구 부부 중창단) · 20:00 미사(야외미사)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주례	문의
교 구	9월 4일(월) 19:00	중앙동성당	하느님의 영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남해본당 주임)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사-문의 바람		010·6608·3217	-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 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해외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34만원 매주 출발
 12월 18일~21일 전주·광주대교구 4일(부산 출발)
 ■ 해외 성지순례 모집
 스페인·포르투갈 13일-2024년 1월 5일~17일
 이스라엘 9일-2024년 4월 22일~30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대성이전 경남장묘컨설팅
신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희성동)
김중은(클레멘스)

가톨릭 트래블
 11/7 제주 올레길 25일
 259만원(식사 미포함)
 24년 4/7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549만원(+1,900유로)
 070-4086-0207 catravel.co.kr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1

공소 순례 소감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구에서 공소 순례가 진행되었다.

이경모 라이문도(진동본당)

본당 꾸리아에서 주관하여 접수를 받으니 18명이 신청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신청으로 차량 문제가 걱정되었으나 하느님의 섭리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례는 거제지구 공소 순례를 계획하였다. 17명의 순례자들은 분주하게 움직여 성당에 모였다. 순례자들은 주임 신부님의 강복을 받고 기도 후 출발하였다.

먼저 산달공소로 출발하였다. 거제 산달은 섬이나, 현재는 연륙교를 설치하여 아주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산달공소에 도착하여 예수님께 인사드리고, 옛날에는 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자들이 모여 기도 생활한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가배공소는 건물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성모상은 파손되고 공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서는 우리는 가슴이 멍한 기분이었다.

울포공소는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 신앙생활한 곳이기도 하다. 중2 때 선종하신 장병화 주교님이 이곳 공소까지 와서 견진성사를 주기도 하셨다. 그리고 탐포공소에 도착하니 공소 회장이 탐포공소의 재건축 과정과 있었던 일들 교구청 건립기금을 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하였다.

학동공소에 도착하였다. 학동공소 회장은 선조의 땅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까지도 공소를 지키고 계셨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할머니 친정 가족이었다. 만나서 반가웠고 안부를 전하고, 예구공소에 도착하여 예수님께 인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17명의 성인의 도움을 청하며 성가를 부르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공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가슴을 울리게 하였다.



예구공소에는 천주교 순례길이 있다. 여기에는 수년 동안 묵묵히 땀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는 강명석(바오로) 할아버지가 있었다. 예구공소에서 공곶이까지 약 1킬로 되는 거리를 할아버지가 순례길을 만들고, 봄에는 수선화 꽃을 구경하도록 조성하였다. 할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하느님 품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잠깐이나마 바오로 할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순례길은 도보로 약 30분을 걸으며, 산 새소리와 파도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에 흘러내리는 땀을 식히고 신심을 달래주었다. 공소 순례를 통하여 이런 명상을 하게끔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진동으로 오는 길 두동공소에 들러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가져간 간식을 함께 먹은 후 순례를 마무리하였다.

“많은 준비를 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운전하신 스텔라 자매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생활 속에서 다음의 공소 순례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창원성심원공소 방문은 중단합니다. 공소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외 공소의 순례는 계속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님,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 루비나(월남동본당)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은 지난 3월 10일의 금요일,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교도소의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선 연둛빛 새잎으로 단장한 나무들이 나를 반깁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하고...

코로나19로 레지오가 중단된 뒤 각자 묵주기도와 까떼나를 매일 바치고, 레지오를 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며 편지와 전화로만 그곳 소식을 전해왔던 형제들을 만나 레지오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교도소의 천주교 담당 교도관님의 관심과 배려, 노력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레지오를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다니던 본당의 교정사목부원회 자매 행사로 교도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줍어 얼굴이 빨개져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던 한 청년의 슬픈 얼굴이 자꾸 떠올라, 저는 겁 없이 주님께 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주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잊혀질만 할 즈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는 어느새 교정사목부원회의 봉사자가 되어 있었고, 긴 시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현재 본당 교정사목부원회 간사로 후원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레지아에서 파견되어 임마누엘공소의 레지오를 돕고 있습니다.

임마누엘공소 레지오는 코로나19 이전에는 2개의 브레시디움(레지오의 기본 단위체)이었으나 그동안 이감과 또 다른 사정으로 많은 단원이 감소되어 지금은 우선 단원 7명으로 구성된 1개의 브레시디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레지오 회합을 하는 천주교관은 밝은 기운이 넘쳐납니다. 기도 소리는 우렁차고, 교본에 따라 하나의 흐트림도 없이 서로 배려하며 정성을 다해 각자의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산 레지아 꼬미시움 꾸리아의 간부들은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레지오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감동입니다.”라며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한 꾸리아 단장님은 회합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레지오가 이렇게 멋진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감동받아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만남의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서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합니다. 주어진 짧은 운동시간에도 짬을 내어 활동 대상자를 찾습니다. 입교 권면과 입단 권유를 하고 아픈 이를 위로해 주며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생들을 도와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5월 성모 성월에는 7명의 단원들이 한 달 동안 묵주기도 5,000단을 바칠 것을 목표로 하여 달성하였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은 단원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참관 단원도 생겼습니다. 처음 참관하는 형제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 레지오 입단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레지오를 하고 선서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울먹이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머지않아 2개의 브레시디움이 나란히 회합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교도소 임마누엘공소의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사로 레지오 전체 지시인 ‘동료들에게 내가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 인사하자’를 이행합니다. 그 안에서 소외된 형제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형제들을 찾아 먼저 다가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 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묵주알을 굴리며, 바라보는 형제들에게 저는 같이 기도하고 그저 미소 지어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

